

혈액암 患者에게 실행한 韓方音樂治療 요법이 백혈구 內 ANC(절대호중구수)수치 증가에 미치는 영향

慶熙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漢陽大學校 조혈모이식센터

李承鉉·白裕相·朴美羅·安智媛

The effectiveness of ANC's number increasing by using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which was applied to blood cancer patients

Lee Seung-hyun·Baik You-sang * ·Park Mi-ra·An Ji-won
Dept. of Oriental Classic,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Center,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changes of WBC and ANC numbers before and after applying Oriental medicine therapy to blood cancer patients. After that, appropriate music therapy method was well planned and carried for patients. Demonstration and music were conducted according to Ohaeng theory. The oriental music therapy was conducted three hours everyday by listening to music and we made patients participate in playing the instrument for one hour in two times a week. The result was verified in three ways by checking and comparing numbers of WBC, ratio of ANC and New Trophil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In addition to that verification, we analyzed patients' survey and their response after treatment. The result was that WBC and ANC were efficient as $p=0.0419$, $p=0.0262$ each and the ratio of New trophil was not efficient in $p=0.999$, but partially increased.

Key words : Blood cancer,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Music therapy

I. 緒論

音樂은 人間歷史 더불어 시작 발전하여 왔고 각 민족과 나라의 歷史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音樂 文化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音樂 文化 중에서 音樂을 통하여 疾病을 治療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생된 것이 바로 音樂治療 요법이다. 音樂治療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 시대의 疾病觀이나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고대 그리스나 中國의 音樂思想 등에서 시작하여 여러 시대를 거쳐 내려오다가, 音樂治療가 학문의 영역으로 개발되고 응용된 것은 194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交信著者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 961-0326, baikys@khu.ac.kr

그 이후 세계로 활발히 전파되어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의 일이며 이후 음악치료에 대한 보고들은 새로운 과학으로 간주되었다.

학문적인 研究를 통하여 발전한 音樂治療學은 음악을 단순히 듣고 즐기는 감상이나 연주의 대상이 아니라, 심리적 질병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音樂治療의 연구방법이 행동주의 심리학과 연결되어 연구되면서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질병치료에만 음악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여기에 반하여 음악치료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 韓醫學의 이론과 치료방법을 음악과 접목하여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치료에도 음악치료가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韓方音樂治療는 편향된 氣를 조절하고, 불안정한 정신과 육체를 조화롭게 하여 각종 질병을 治療,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療法이다. 이것은 既存의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音樂治療와는 달리, 精神과 肉體를 하나로 보는 韓醫學 이론에 접목되어 연구된 새로운 한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최근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¹⁾ 식물실험과 동물실험의 검증은 거친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²⁾.

본 연구는 혈액암 환자의 항암치료와 동시에 韓方音樂治療를 실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환자의 생리, 병리적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韓方音樂治療를 실행한 후 백혈구 수의 증가 및 ANC(절대호중구수)의 수치변화를 측정하여 치료 전의 수치와 비교한 후 유의성을 검증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식물 및 동물 실험을 벗어나 일반 환자, 특히 혈액암이라는 특이 질환에 대하여 韓方音樂治療가 어느 정도 유효한지를 알아보는 기초실험으로서 앞으로 다른 질환에도 폭넓게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 데에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즉, 단순히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치료로서가 아니라 실제 질병을 호전시키는 치료의 일반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치료는 그 방법상 기존의 치료를 변경하지 않고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 여러 분야의 치료방법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의 임상치료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방음악치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였고, 한방음악치료 전후의 WBC, Neutrophil 비율, ANC(Absolute Neutrophil Count) 등을 검사하여 그 유효성을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환자 설문을 통한 여러 반응들을 분석해 보았다.

II. 本論

1. 이론적 검토

1) 혈액암환자의 정의 및 일반적 증상

혈액암이란 혈액 또는 림프계에서 발생한 악성 혈액질환으로 백혈병, 골수이형성증, 다발성 골수종,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있다. 혈액암의 발생원인은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선의 독성과 관계가 있으며 기타 암보다 자각증상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발견도 가능하다.

급성백혈병 초기증상을 보면 병세가 빠르고 발병이 시작하면서 열이 나고 빈혈로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았는데도 피부에 멍이 들고 코피를 흘린다. 이것이 초기증상이다. 즉 불규칙하게 열이 나고, 빈혈로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출혈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급성백혈병의 3대 증상이라 할 수 있다.

만성백혈병 초기증상으로는 전신무기력, 빈혈, 간장 및 비장종대가 3대 특징이다. 초기에 빈혈 증상이 나타나면서 백혈구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골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기력, 허

1) 李承鉉, 白上龍 : 三陰三陽과 律呂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논문집, 2002, p. 10-12.
2) 李承鉉 : 五行으로 분류한 音樂이 누에의 形質變化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2003

약, 체중감소, 미열, 잠들 때의 식은땀, 왼쪽 옆구리 불쾌감, 가슴뼈(흉골)의 통증 등이 만성백혈병의 초기증상이라 할 수 있다. 빈혈이나 출혈이 나타나면 초기를 넘어선 상태다.

위의 증상들에 대한 임상 보고를 살펴보면, 피로는 암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특히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75-99%가 가장 빈전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보고하고 있다.(Dimeo, 2001; Mock, 2001; Jacobsen et al., 1999; Irvien et al., 1994; Piper, 1992; Strauman, 1986; Knobf, 1986). 암 환자들은 질병자체와 관련된 대사산물의 축적, 감염이나 발열로 인한 에너지 소모의 증가, 저하된 영양상태 및 정서적 문제들로 인해 쉽게 피로를 호소하게 되고(Jones, 1993; Piper, Lindsey & Dodd, 1987; Piper, 1992; 이은현, 1992), 화학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오심, 구토, 설사, 빈뇨 등의 신체적 문제로 인해 휴식이나 수면을 방해받음으로써 피로를 경험하며 식욕 부진, 맛의 변화, 점막염, 구강건조증, 부적절한 식사, 골수 억압 등에 의해 피로 호소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isters, 1987; Piper, 1992; Winningham, Nail, Burke & Brophy, 1994). 피로는 신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 수행이 감소하고 우울, 불안, 무기력 등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유발함으로써 에너지 부족, 활동저하와 함께 대인관계를 감소시켜서 환자 스스로 사회적 지지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만성질환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실제적 또는 인지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도전-회피 반응은 자율신경계의 활동으로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계와 신체적 기능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2) 혈액암에 대한 韓醫學의 접근과 이해

한의학적 이론을 토대로 혈액암에 대하여 해석해보면, 『內經·宣明五氣篇』에서 “腎主骨”이라 하여 뼈는腎이 주관한다고 하였는데 곧 뼈는 先天 또는 後天의 精을 갈무리하여 뼈를 튼튼히 하

는 밑바탕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腎에 精이 충실하다 하더라도 後天적으로 水穀之精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뼈를 滋養할 수 없게 되므로 氣血을 만들어내는 脾胃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血을 주관하는 肝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또한 膽은 『內經·靈蘭秘典論』에서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이라 하여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지 않고 안정됨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膽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가 불안해지면서 精神적으로도 안정을 잃게 되어 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의 膽은 心氣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心의 神氣가 약하여 骨病이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骨髓病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은, 先天之精인 腎精의 충족 여부, 肝의 약화로 인한 血病의 초래, 脾胃를 통한 後天의 水穀之精의 生成, 心과 膽의 정신적인 요소로 인한 장애 등등의 관점을 통하여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韓方音樂治療 요법의 특성

혈액암 환자에 있어서 기존의 음악치료에 대해 살펴보면, 홍미순(1989)은 음악이 통증 감소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활기와 이완감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은 뇌혈류에 영향을 주어, 조용한 음악은 뇌혈류를 느리게 하고 혈량을 감소시키며 활기찬 음악은 뇌의 순환을 증가시키므로 환자의 기분을 자극할 수 있으며, 또한 자가 조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있어 음악요법은 62명 중 28%에서 낮은 불안감을 나타내었으며 38%에서 낮은 기분 장애가 있다는 임상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음악치료는 환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되지 않고 막연한 안정감과 뇌혈류량에 대한 자극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방음악치료는 韓醫學의 이론과 치료방법을 바탕으로 연구된 새로운 음악치료법으로, 편향된 氣를 조절하고, 불안정한 정신과 육체를 조화롭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법이다. 이것은 기존의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악 치료와는 달리,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보는 한의학 이론에 접목되어 연구된 새로운 한방요법으로써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韓方音樂治療는 지금까지의 음악치료와 달리, 정신이나 정서적인 질병의 치료에 연결되어 행동주의 심리학 중심으로 발전한 기존 음악치료의 한계를 벗어나 精, 氣, 神에 영향을 주어, 정신 및 정서적인 질병과 연결된 치료 뿐 만 아니라 육체의 形質의인 질병에도 치료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음악치료의 이론과 연구라는 점에 우수성이 있다.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보는 한의학 이론에 입각해서, 인체의 組織構造, 生理機能, 病理變化, 診斷, 治法에 맞는 氣를 말하는 음악을 사용하여 陰陽失調를 조절하는 것으로, 기존의 藥物치료나 鍼灸치료를 더불어 시행할 수 있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함하는 心身均衡的 치료 정신에 입각한 개념의 치료이다.

또한, 생명체의 生長收藏, 生老病死 變化와 이의 토대가 되는 陰陽五行의 관점을 통하여 환자의 氣 상태를 바라보고 진단하며, 치료에 있어서도 이 陰陽五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치료 계획을 입안하여 진행하는 치료 방법이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七情의 변화나 氣血은 순환은 모두 陰陽五行의 운동을 하고 있다. 肝心脾肺腎의 五臟의 활동이 바로 陰陽五行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五神과 七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晝夜와 四時에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陰陽五行의 변화를 하고 있다. 陰陽五行의 법칙이란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운동하는 것을 법칙으로 표현한 것으로 木火土金水의 변화 추이는 시간의 흐름, 공간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또한 氣의 흐름으로 본다면 升降과 出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환자에 대하여 처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기운의 흐름을 잘 살피고, 그 순조롭게 氣가 진행하는 흐름에 맞추어서 韓方音

樂治療를 시행함으로써 인체의 精神氣血을 조절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2. 실행방법

1) 항암치료와 실험군의 선택

(1) 항암치료의 과정

항암치료 기간의 기본 단위는 4주 28일을 기본으로 한다. 1차 기본 단위에서는 체내 암세포율을 5% 이하로 줄이기 위한 기대치를 높이는 치료를 하는데 이를 관해유도치료라고 한다. 2차, 3차 이상의 치료 단위에서는 실제로 암세포율을 5% 이내로 확실하게 줄이는 완전 관해를 위한 공고치료를 실시한다.

기본 단위 안에서는 항암치료로 인하여 2주째부터는 WBC와 ANC의 수치가 떨어지고 3주째부터는 서서히 오르면서 마지막 4주째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2, 3차 이상의 기본 단위 치료를 시행하면서 환자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차수가 증가할수록 환자가 힘들어하고 수치가 낮아지는 변수가 있다.

(2) 실험군의 선택

본 연구는 2004년 2월 10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 소재 모 대학부속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한 혈액암 환자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임의추출 하였다.

- ① 항암화학요법 치료주기에 있는 암 환자
- ②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 자
- ③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
- ④ 신체적으로 한방음악요법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 기능적 상태(Karnofsky Performance Status)가 50% 이상인 자
- ⑤ 설문지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 가능한 자
- ⑥ 본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자

2) 韓方音樂治療 시행 방법

(1) 진단 방법

① 설문지 사용

혈액암 환자를 위한 진단 및 변증을 위한 전용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부록으로 첨부]. 설문지의 형식은 크게 기초 신상자료, 脈象, 체형, 통증, 수분 섭취, 發熱, 惡寒, 땀, 소변, 대변, 음식 섭취, 수면, 심리, 체력 및 면역력, 음악 경향성 등 총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중 통증의 부위와 양상, 發熱과 惡寒, 수분 대사와 대소변, 식습관, 심리 상태 등이 혈액암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평소의 음악 경향성을 설문하여 음악치료에 대한 친화도를 파악하였다.

② 望診 및 切診

환자의 肥瘦, 顔色, 骨格 등을 望診으로 파악하여 氣血의 多少와 上下 陰陽의 편차를 보았으며 切診을 통하여 간단한 浮沈, 遲數, 大小, 強弱, 滑澀 등을 나누어 보았다.

(2) 辨證 및 한방음악치료 계획 입안

환자 설문 자료 및 望診, 切診 결과들을 취합하여 한의사 및 한방음악치료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1차로 환자의 병인, 병증에 대한 변증을 실시한다.

이후 2차로 각각의 환자에 대한 한방음악치료의 방향을 결정짓고 그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음악치료를 시행할지를 계획 입안한다.

(3) 한방음악치료 실행 방식

① 감상치료 방법

a. 病證 진단을 위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각 환자의 증상과 몸의 상태를 진단하여 陰陽失調를 파악한 후 치료 방향을 입안하고 나서, 각 환자에게 투여할 五行音樂 테이프를 약 1시간 분량으로 제작하였다.

b. 함암치료 시작일인 C1~C28까지 하루에 3번씩 10시, 15시, 20시 정각에 五行音樂 테이프를 들려주었다. 대체적으로 식사 후 약 1.5-2시간 범

위에 속한 시간대이다.

c. 음악 청취 시 환자가 음악에만 몰두하도록 지도하였다.

② 악기연주치료 방법

악기 실연을 통한 오행음악치료 시행은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조혈모세포이식센터에서 이루어졌다. 그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악기연주 치료 전 매일 3회 실시되는 오행음악청취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그리고 악기 연주를 실시할 치료군은 변증의 종류에 따라서 2-3개 군으로 나누고 치료 장소를 각각 달리하여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木氣, 土氣, 水氣, 火氣 음악에 따라서 치료군을 달리하여 장소를 나누어 각각에 맞는 연주를 실시하였다.

<우드블럭 연주>

- a. 전체 연주에 앞서서 복식호흡을 시켜서 안정시킨다.
- b. 우드블럭을 사용하여 약 15분간 리듬을 연주한다. 이 때의 리듬은 변증 결과에 맞추어 오행리듬을 실시한다.
- c. 마지막에는 호흡과 연주를 병행하여 마무리한다. 예를 들어 1박자의 길이로 숨을 들이쉬고 4박자 길이로 숨을 내쉬어서 1:4이 비율로 호흡을 진행하고 이때 호흡에 맞추어 우드블럭을 친다.

<핸드벨 연주>

- a. 음이 정해진 핸드벨을 각 조당 3-4개를 나누어 가지고 단순하고 서정적인 동요부터 시작하여 연주를 시킨다.
- b. 약 15-20분 정도 연주치료를 한다.
- c. 처음에는 음계에 대한 스케일 연습을 시키고 이후에 연주를 시작한다.
- d. 이후 화음 연주를 병행하는데 보통 1도, 4도, 5도를 시행한다.

<소고 연주>

- a. 처음에는 구음을 연습시킨다. 장단은 주로 굿거리, 세마치를 무릎치기와 함께 시행한다.

- b. 구음에 익숙해지면 소고를 동시에 치게 한다.
- c. 익숙해지면 세마치장단의 노래, 예를 들어 아리랑을 부르면서 소고를 연주하는데 이때는 서서 연주하여 리듬에 따라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4) 검증방법

① 기본 검사

항암치료의 기본 단위인 28일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CBC(Complete Blood Count)를 측정하여 그 중 WBC($\times 10^3/\text{mm}$), Neutrophil비율(%), ANC 등을 기록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의 기본 검사 기록

실험군	성별/나이	진단명	항암치료횟수/종류
1-a	F/21	AML	6th/Ara-C, Mitoxantrone

기간	C1	C2	C3	C4	C5	C6	C7
WBC($\times 10^3/\text{mm}$)	4900	4300	5900	3400	3000	2600	1500
Neutrophil(%)	69	94	91.7	97.4	97.1	96.7	94.1
ANC	3381	4042	5410.3	3311.6	5826	2514.2	1411.5
기간	C8	C9	C10	C11	C12	C13	C14
WBC($\times 10^3/\text{mm}$)	500	300	100	200	100	100	100
Neutrophil(%)	i	i	i	i	i	i	i
ANC	-	-	-	-	-	-	-
기간	C15	C16	C17	C18	C19	C20	C21
WBC($\times 10^3/\text{mm}$)	100	100	100	100	200	200	400
Neutrophil(%)	i	i	i	i	i	i	i
ANC	-	-	-	-	-	-	-
기간	C22	C23	C24	C25	C26	C27	C28
WBC($\times 10^3/\text{mm}$)	700	1200	2200	2800	1700	1700	1500
Neutrophil(%)	i	76	78.3	78	78	63.6	75
ANC	-	912	1722.6	2184	1326	1081.2	1125

기본 단위 28일 중에서 항암치료로 인하여 2주

째부터는 WBC와 ANC의 수치가 떨어지고 3주 말부터는 서서히 오르면서 마지막 4주째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 3차 이상의 기본 단위 치료의 차수가 증가할수록 환자가 힘들어하고 수치가 낮아지는 변수가 있다. 위 도표에서 WBC가 1000 이하로 낮게 나올 경우에는 Neutrophil 비율이 잘 측정되지 않으므로 'i'로 표기하고 ANC도 blank로 나타내었다.

② 한방음악치료 실행 전후의 WBC, Neutrophil (%), ANC 수치 비교

매주 2회 음악연주치료를 실시하기 바로 전후에 각각 1회씩 수치를 측정한다. 이 자료를 t-test를 통하여 통계 처리하여 유의성 여부를 검증한다.

③ 추가분석

한방음악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 한방음악요법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질문형태로 면담을 하였다. 대상자 스스로 한방음악요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고, 대화가 중단되면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유도하였다. 면담 결과로 나온 각각의 진술을 요약한 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3. 실험 내용

1) 1차 변증 결과

아래에서 혈액암 환자 실험군에 대한 증상 및 진단 결과를 요약하여 기록하고 간단한 변증 결과를 기록하였다. 骨髓病에 대한 한의학적 辨證은 주로 先天之精인 腎精의 충족 여부, 脾胃를 통한 後天之 水穀之精의 生成, 肝에 의한 血의 자양기능 여부, 心과 膽의 정신적인 요소 등의 관점을 통하여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脾胃가 약한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肝腎의 精血이 허하여 나타난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心, 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있었다.

① 사례 1(F/21)

진단 : 박동수는 정상. 소양두통과 양명두통이 같이 있다. 소화불량성, 신경성 두통이 있다. 성격이 조금 예민하다. 땀을 내고 나면 상쾌하다. 아침에 눈 주위가 붓는다. 수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약간의 변조증이 있다.

변증 : 氣血은 크게 부족하지 않고 약간 陰精이 虛한 상태이며 濕熱도 조금 나타난다.

② 사례 2(F/44)

증상 : 박동수는 정상. 키가 작고 외견상 뚱뚱한 편이다. 眩暈과 耳鳴이 있고 얼굴이 잘 부으며 코감기가 자주 온다.

변증 : 精氣가 머리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여 上焦에 氣가 울체되어 있으며 熱象도 조금 있다. 일종의 氣滯證이며 肺를 보하여 行氣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사례 3(F/28)

증상 : 박동수 약간 높음. 무릎이 아프고 저리다. 찬물을 많이 마시고 입이 자주 마른다. 머리와 얼굴에만 열이 있고, 얼굴과 손바닥에 땀이 난다. 몸이 붓지 않는다. 채식을 주로 한다. 잠들기가 쉽지않다. 우울할 때 가슴이 답답하다.

변증 : 精虛가 심하며 그로 인한 發熱과 煩燥가 있다. 또한 脾胃虛로 인한 陰火發熱이 보이기도 한다.

④ 사례 4(F/51)

증상 : 매우 마른 체형이나 골격은 뚜렷하다.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매우 부지런하지만 급하고 예민하다. 예를 들어 악기연주를 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옆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정신불안으로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변증 : 脾의 陽氣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이며 나아가 心, 膽까지 약한 상태로 볼 수 있다.

⑤ 사례 5(M/24)

증상 : 박동수가 높고 左右脈이 약하고 沈하다. 음식은 주로 육식을 좋아하며 차게 잤을 때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

며 갈증이 있다. 전신에 식은땀이 많다. 신체에 털이 많아 陰氣가 성하다. 잠들기가 쉽지 않으며 변조가 있다.

변증 : 脾의 陽氣가 약하므로 이를 補하여 生血시켜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 熱象으로 인한 煩燥가 나타나므로 이를 내려야한다.

⑥ 사례 6(F/24)

증상 : 박동수가 높음. 머리가 아프고 가끔 眩暈 증상이 있다. 키가 매우 크고 골격이 뚜렷하다. 손발에 열이 나며 기운이 조금 없다. 코감기, 목감기로 기운이 없으며 가슴이 답답한 煩燥가 조금 있다. 성격은 차분하다.

변증 : 脾胃와 七情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약간의 氣虛로 인하여 미열이 조금 있다.

⑦ 사례 7(M/44)

증상 : 치질, 잇몸출혈이 있고 박동수가 빠르며 左脈이 약하다. 몸이 저리고 쭈시며 밤에 잘 때 다리가 저리다.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며 전신에 땀이 있다. 감기는 보통 몸살감기가 많다. 겉으로 보면 多氣多血하게 보이나 정서적으로 폐쇄적인 면이 있다. 寒氣를 조금 느낀다.

변증 : 血病이 많고 정서적인 면이 병의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補血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한편으로 기운이 가라앉지 않도록 올려주어야 한다.

⑧ 사례 8(M/28)

증상 : 소갈증이 있고 꿈을 많이 꾸다.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프다. 아토피가 있어서 피부가 건조하며 몸에 發熱이 있다. 급성신부전을 앓은 적이 있으며 소변을 자주 보고 몸이 붓는다. 꿈이 많고 걱정은 많으나 불안증은 없다.

변증 : 肝, 腎의 陰이 虛하며 동시에 濕熱의 象이 있다.

⑨ 사례 9(F/17)

증상 : 박동수가 높다, 기운이 없고 변조 증상이 있다. 胃, 大腸 등 소화기가 약하다. 煩燥가 있어 찬물을 마시며 갈증이 조금 있어서 입이 마른다. 발에 熱이 나며 소변을 자주 본다.

변증 : 升氣가 부족하므로 脾胃를 보해야 한다.

2) 한방음악치료 계획 입안

① 사례 1

陰虛(精血)로 인한 煩燥가 있어 陰氣를 보충하기 위한 金氣나 水氣음악이 필요하지만, 울광 증상에 대해서 기분을 즐겁게 맞춰주면서 안정되게 가라앉혀야 하기 때문에 木氣와 火氣音樂으로 20분 정도 시행한 후 마지막에 水氣音樂을 시행한다.

② 사례 2

氣虛로 인한 眩暈과 耳鳴이 있고, 精氣가 머리 쪽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氣를(肺主氣) 補하기 위한 金氣音樂 위주의 치료가 필요하다. 더불어 열을 발산시키기 위한 음악의 선곡이 병행되어야 한다.

③ 사례 3

精氣가 虛하여 陰虛 발열이 있고, 煩燥가 있기 때문에 陰氣를 위한 金氣와 水氣音樂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脾胃의 기운을 도울 수 있는 土氣音樂을 먼저 위주로 시행해야 한다.

④ 사례 4

脾의 陽氣부족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脾의 기운을 도울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土氣音樂 위주의 치료가 필요하다. 예민함과 정신불안증이 있어 土氣와 水氣音樂을 먼저 투여한 후에는 木氣音樂을 섞어서 실행한다.

⑤ 사례 5

脾胃를 약하게 타고났고, 陰火가 있어 升氣가 안되기 때문에 먼저 土氣音樂으로 脾胃의 기능을 補하고 차후에 火氣音樂을 시행하여 陰火의 발산을 유도하며 드러나는 火와 번조증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水氣音樂으로 마무리한다.

⑥ 사례 6

脾胃, 腎, 七情 모두 큰 문제는 없으나 精氣가 조금 虛하여 寒氣를 느끼거나 미열이 있고, 성격은 차분한 편이나 조금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木氣音樂과 火氣音樂을 위주로 시행하지만, 약간의 번조와 현훈치료를 위해서 金氣音樂을 섞어서 투여해야 하며, 마지막은 土氣音樂으로 안정감을 준다.

⑦ 사례 7

陰虛 發熱이 있어 겉으로는 多氣多熱해 보이지만, 精氣가 약하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火氣音樂으로 發散시키는 치료를 먼저 하고, 土氣音樂을 위주로 안정시키면서도

기운이 가라앉지 않도록 촉동시키는 木氣音樂으로 마무리 한다.

⑧ 사례 8

血虛, 血熱로 肝에 문제가 있고, 精虛有熱로 腎에 문제가 있으며, 걱정과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陰을 補하는 水氣音樂을 위주로 하면서 木氣를 섞어주어 심리적으로 촉동시키다가 土氣音樂으로 안정시킨다.

⑨ 사례 9

陰虛 發熱(五心熱)이 있고 煩燥가 있기 때문에 水氣音樂 치료가 필요하지만, 氣虛로 기운을 끌어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脾胃를 補할 수 있는 土氣音樂 위주의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

그 후에 水氣音樂으로 陰氣를 補해야 한다.

3) 각 환자별 실행 음악

가능한 1시간 단위에 맞추어서 선곡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반복 청취토록 하였다. 적게는 4곡 많게는 7-8곡까지 녹음하였으나 여기서는 최소 4곡에 맞추어 표기하였다.

① 사례 1

Haydn : Serenade

Boccherini : Minuet

W. A.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k.525

Romanze

T. Albinoni : Adagio in g minor

② 사례 2

E. Elga : 사랑의 인사

L. V. Beethoven : Cello Sonata op.69 2nd

가야금 산조 : 중중모리, 자진모리

T. Vitali : Chaconne g minor

③ 사례 3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K.622 A major 2nd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2nd
 R. Schumann : Dichterliebe 中 No.5
 W. A.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k.525
 2nd, 3rd
 ④ 사례 4
 Haydn : Symphony No.101 2nd
 J. S. Bach : Cantata No.147 中 no.6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K.622 A major 2nd
 가야금 산조 : 중중모리
 ⑤ 사례 5
 W. A. Mozart : Piano sonata K.331 3rd
 W. A.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k.525
 2nd
 Pergolesi : Stabat Mater 中 Dolorosa
 T. Albinoni : Adagio in g minor
 ⑥ 사례 6
 L. V. Beethoven : Cello Sonata op.69 2nd
 F. Handel : La Scha Chio Pianga
 F. Chopin : Waltz op.64 no.2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K.622 A major 2nd
 ⑦ 사례 7
 Dvorak : Symphony No.9 4th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K.622 A major 2nd

J. S. Bach : Cantata No.147 中 no.6
 가야금 산조 中 중모리와 중중모리
 ⑧ 사례 8
 J. S. Bach : Suite No.2 中 Air
 T. Albinoni : Adagio in g minor
 J. Brahms : Hungarian Dances 21 中 no.1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K.622 A major 2nd
 ⑨ 사례 9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K.622 A major 2nd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2nd
 F. Handel : for Harp and String Concerto B flat major op.4
 W. A.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k.525 Romanze

4. 검증 및 고찰

1) 한방음악치료 실행 전후의 WBC, Neutrophil (%), ANC 수치 비교
 혈액암 환자의 9가지 사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각 사례의 연령, 성별, 결혼여부, 진단명, 진단후 경과기간, 이전까지의 화학항암치료의 횟수는 아래 도표와 같다.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연령	21	44	28	56	23	24	44	28	17
성별	여	여	여	여	남	여	남	남	여
결혼여부	미혼	기혼	기혼	사별	미혼	미혼	기혼	미혼	미혼
진단명	AML	AML	ALL	AML	CML	ALL	AML	ALL	ALL
진단후 경과(개월)	5	6	6	3	24	7	3	4	87
화학항암요법횟수	5	4	2	2	2	4	2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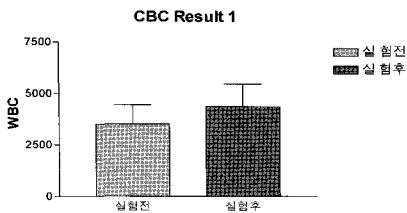
진단명은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genous leukemia),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genous leukemia), 급성림프성백혈병(acute lymphocytic leukemia), 만성림프성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등으로 나누었다.

위의 9사례 중에서 사례7의 남자 환자는 감상 치료는 받았으나 악기 연주 치료는 따라 하기 힘들어 도중에 포기했으며, 사례8의 남자환자는 입원과 퇴원을 자주 반복하는 관계로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워 한방음악치료 전후의 WBC 수 변화

에 대한 데이터검증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사례9의 여자환자는 늦게 입원하여 C1 - C28의 기본 단위를 다 채우지 못한 관계로 역시 데이터검증에서 제외했다. 각 사례에 대한 한방음악치료 실행 전후의 WBC, Neutrophil(%), ANC 수치는 사례별로 1회에서 5회까지 다수의 자료를 평균 처리한 값으로서 치료 기간 중 변화가 심한 절대값보다는 증감량에 초점을 맞추어 통계처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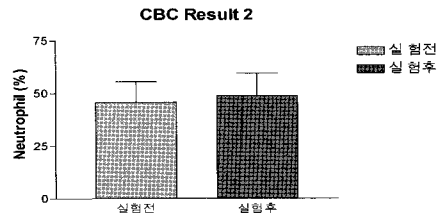
(1) 한방음악치료 전후의 WBC 수 변화에 대한 검증

	처치전 WBC	처치후 WBC	p value (<0.05)	유의성
사례 1	5600	5700	0.0419	유의성 있음
사례 2	2700	3700		
사례 3	6800	8600		
사례 4	3000	4600		
사례 5	533	600		
사례 6	2460	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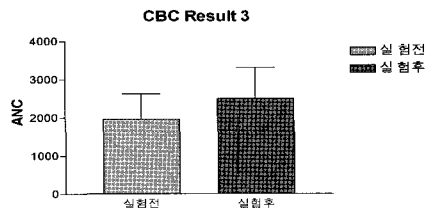
(2) 한방음악치료 전후의 Neutrophil 비율(%) 변화에 대한 검증

	처치전 N(%)	처치후 N(%)	p value (<0.05)	유의성
사례 1	69	79	0.0999	유의성 없음
사례 2	59.6	64.0		
사례 3	58	60		
사례 4	18.9	18.8		
사례 5	12.0	14.4		
사례 6	56.3	56.3		



(3) 한방음악치료 전후의 ANC(Absolute Neutrophil Count) 변화에 대한 검증

	처치전 ANC	처치후 ANC	p value (<0.05)	유의성
사례 1	3864	4503	0.0262	유의성 있음
사례 2	1642	2395		
사례 3	3944	5160		
사례 4	567	865		
사례 5	67	91		
사례 6	1648	1951		



2) 추가분석에 대한 결과

진술	범주
활력이 생긴다. 몸이 시원해지고 근육이 풀어진다. 개운하고 몸이 가볍다. 머리가 아플 때 개운해진다. 몸을 움직이니까 멎친 것이 풀린다. 몸이 처지는 게 덜하다. 움직이니까 몸이 멎친 것도 풀어지고 몸이 좋아진다. 하기 싫어도 하고나면 몸이 더 나아진다. 살갓이 아플 때 음악요법을 하고 나면 아픈데 나아진다. 힘들다.* 나중에는 지루한 감이 있었다.*	신체적

진술	범주
기분이 좋다. 즐거우니까 좋다. 편안한 느낌이 든다. 기분이 나아진다. 기분이 안정되고 개운하고 좋다. 기운이 난다. 정신이 또렷해진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다.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정신적
다른 환자와 함께 하니까 좋다. 무료한 병실 생활에서 음악요법이 기다려진다.	사회적
* 부정적 반응	

Gaston(1983)은 음악요법은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을 보다 존중하며, 자기실현, 자기신뢰, 충족감, 능력, 자기만족, 자기안전 등으로 자존심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요법은 음악과 환자를 관계 짓는데 있으며, 집단함여를 통해서 환자로 하여금 생활에 적응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신체적 범주에 속하는 답변에서 일부 '힘들다', '지루하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앞으로 음악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충해 나감으로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적 범주에 속하는 답변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분이 좋아진다', '정신이 또렷해진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등의 좋은 반응들이 나타났다. '다른 환자와 함께 하니까 좋다', '무료한 병실 생활에서 음악요법이 기다려진다'라고 음악요법의 사회적 범주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즉, 환자는 한방음악요법을 통해서 사회적 교섭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환자를 사회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3) 고찰

(1) 결과 분석 및 의의

혈액암 환자의 9가지 사례 중 6 사례에 대하여 통계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각 사례의 대한 한방음악치료 실행 전후의 WBC, Neutrophil

(%), ANC 수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BC 검사에서는 $P=0.0419$ 로서 유의성 있음의 결과가 나왔고, Neutrophil 비율(%)의 검사에서는 $p=0.0999$ 로서 유의성 없음의 결과가 나왔으며, ANC 수치에서는 $p=0.0262$ 로서 유의성 있음의 결과 나왔다. 이는 WBC나 Neutrophil의 절대수에 있어서는 현저한 증가가 있어 유의성이 있었으며, Neutrophil 비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단 Neutrophil 비율(%)에서도 유의성은 없으나 약간의 증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추가 분석에 대한 결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category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한방음악치료가 환자의 질병외적 건강상태의 개선에 도움을 줌을 알 수 있었다. 단, 방법상의 문제로 힘들고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194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발 연구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음악치료는 서구의 행동주의 심리학과 음악이 결합되어 연구된 방법으로 자폐이나 정신지체자 등 심리적, 정신적 이상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한의학의 이론과 치료 방법으로 새롭게 연구된 한방음악치료는 정신적, 심리적 치료수단 뿐만이 아닌 육체의 질병 치료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임상실험에서 혈액암 환자의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설문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단 및 변증을 통해 신체적 병증 치료를 위한 한방음악 치료를 실행한 결과, 백혈구 수치의 증가 및 면역력을 보여주는 절대호중구수의 증가에 유의성을 얻게 되어 앞으로의 한방음악치료 활용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본다.

(2) 개선 사항

이번 실험을 통하여 개선해야할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격리된 공간인 조혈모세포이식센터에서 실행

험을 실행하게 되어 입원환자를 많이 받을 수 없어서 실험군의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점

② 동일 차수의 환자 실험군이 많지 않아서 4 주간의 항암치료를 실행할 때에 음악감상 치료의 효과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통계처리 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악기연주치료를 실행할 때에 前後의 백혈구 수치변화만을 통계처리한 점.

③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가 충분한 다른 질환에 대하여 동일한 한방음악치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증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III. 結 論

1. 본 연구는 한방음악치료 요법을 혈액암 환자에게 시행하였을 때 WBC(백혈구) 및 ANC(Absolute Neutrophil Count 절대 호중구 수)의 전후 수치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한 것으로 단일 군을 선택하여 진행하였으며 기타 탐색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2. 연구기간은 2004년 2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었으며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부속대학병원에서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위해 입원한 환자 중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질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는 7명으로 하였다.
3. 한방음악요법 전문가 및 한의사가 개발한 한의학 변증진단을 위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각 환자의 건강 상태 및 병인을 조사하고 脈診과 望診을 통하여 치료방향을 정한 후 여기에 맞는 음악치료 계획을 세워 환자에게 시행하였다. 辨證은 五行 이론에 입각하여 하였으며 음악의 선정도 이 기준에 따랐다.
4. 한방음악치료는 매일 3시간씩 음악 청취를 시행하고 매주 2회 1시간씩 악기를 가지고 실제 연주를

통하여 환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치료를 시행하였다.

5. 검증 방법은 음악치료를 실시하기 바로 직전과 직후의 백혈구 수, 절대 호중구 수, 호중구의 비율 등 세 가지를 측정하여 서로 비교하였으며 그 밖에 치료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환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6. 검증결과 백혈구수와 절대 호중구수에서는 각각 $p=0.0419$, $p=0.0262$ 의 유효성 있음의 결과가 나왔으며 호중구 비율에 있어서는 $p=0.999$ 로 유효성은 없었으나 일부 증가된 것으로 나왔다.
7. 추가 분석에서는 대상자의 진술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22개의 진술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각 범주별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IV. 參 考 文 獻

1. 박찬국 : 氣와 音樂 한방음악치료포럼논문집, 2004, p. 1-6
2. 백유상 : 黃帝內經을 바탕으로 한 韓方音樂治療 方法 研究. 한방음악치료포럼논문집, 2004, p. 14-32
3. 이승현 : 五行理論을 기초로 한 音樂이 식물의 발아에 미치는 영향. 세울음악연구회논문집 제5권, 2002, p. 183-193
4. 이승현 : 한방간호 정립을 위한 한의학의 이해 (II)-韓方音樂治療의 기초이론 및 五行音樂의 분류 및 적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호사회, 2003
5. 이승현 : 韓醫學的 音樂治療를 위한 실험연구. 한방음악치료학회창립학술대회논문집, 2003, p. 18-23
6. 이승현, 백상용 : 三陰三陽과 律呂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논문집 15(2)(통권 21호), 2002, p. 10~12
7. 이승현, 백상용 : 生命律動과 聲音의 관계에 대한

- 研究(한방음악치료의 이론연구 I). 한국한의학회연구
원논문집 8(1)(통권8호), 2002
8. 이승현, 홍원식 : 五行으로 분류한 音樂이 누에의 形質變化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전학회논문
집 16(2)(통권23호) 2003
 9. 이은현 : 암환자의 피로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9(4), 1999, p. 755-765
 10. 홍미순 : 음악요법 이용이 수술환자의 동통에 미
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제1권, 1989, p. 57-71
 11. Aistrars, Juli : Fatigue in the cancer patient -
A Conceptual Approach to a Clinical Problem.
Oncology Nursing Forum, 14(6), 1987, p. 25-30
 - 12 . Dimeo, Fernando, Carlos : Effects of Exercise
on Cancer-Related Fatigue. Cancer Supplement,
92(6), 2001, p. 1689-1693
 13. Irvine. D., Vincent. L., Graydon. J. E., Bubela.
N., & Thompson. L. :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fatigue in patients receiving
treatment with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 A comparison with the fatigue
experienced by healthy individuals. Cancer
Nursing, 17(5), 1994, p. 367-378
 14. Jacobsen. p. B., Hann. D. M., Azzarello. L.,
Horton. J., Balducci L., Lyman G. H. : Fatigue
in Women Receiving Adjuvant Chemotherapy
for Breast Cancer - Characteristics, Course, and
Correlates. Journal of Pain Symptom Manage,
18(4), 1999, p. 233-242
 15. Jones. L. : Correlates of fatigue and related
outcomes in individuals with cancer undergoing
treatment with chemo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1993
 16. Nail. L. M. & Winningham. M. L. : Fatigue
and weakness in cancer patients - The
symptom experience. Seminars in Oncology
Nursing Forum, 11, 1995, p. 272-278
 17. Piper. B. F. : Subjective Fatigue in Women
Receiving Six Cycles of Adjuvant Chemotherapy
for Breast Cance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1992
 18. Paper. B. F., Lindsey. A. M., & Dodd. M. f. :
Fatigue Mechanisms in Cancer Patients :
Developing Nursing Theory. Oncology Nursing
Forum,14(6), 1987, p. 17-23
 19. Winningham. Mary L., Nail, Lillian. M., Burke.
M. B., Brophy. L. : Fatigue and the Cancer
Experience - The State of the Knowledge.
Oncology Nursing Forum, 21(1), 1994, p. 26-36

부록 한방음악치료를 위한 체질조사 설문지

◎ 설문지 작성요령

1. 모든 질문은 치료를 받기 전 환자의 평소 상태를 중심으로 묻는 것입니다. 만약 최근의 상태가 평소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항목을 대답하는 경우에 한하여 따로 빈 공간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2. <통증>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현재 아픈 상태를 중심으로 적어주십시오.
3. 답변에 나열된 항목에서 벗어난 기타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빈 공간에 적어주십시오.

◎ 동의

본 설문조사는 귀하의 체질을 분석하여 앞으로 시행할 한방음악치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내용을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진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밝힙니다. 본 설문조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귀하의 질환에 대한 한방음악치료의 시행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습니다)

◎ 기초 신상자료 성명 ()

성별(남/여) 연령 (세)
 신장 (cm) 체중 (kg)
 병력(현재 질병 이외에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질환을 기록해 주십시오.)
 →

◎ 맥상

박동수 (회/ 1분)
 부정맥이 (있다/없다)
 좌 ()
 우 ()

◎ 체형

골격이 (뚜렷하다/보통이다/빈약하다)
 외견상 몸이 (마른 편이다/보통이다/뚱뚱한 편이다)

◎ 통증

부위 ()
 언제 ()
 양상 ()
 예) 아프다, 저리다, 당긴다, 감각이상, 시리다

◎ 수분 섭취

섭취량은 하루에 ()cc 또는 (많다/보통이다/적다)
 선호도(찬물/따뜻한물)
 수분섭취량에 상관없이 갈증이 (있다/없다), 입이 (마른다/마르지 않는다)
 물마시는 때는 (식사전후/밤중에/일정하지 않다)

◎ 發熱

평소에 체온이 (높다/보통이다/낮다)
 가끔 고열이 (난다/없다)
 일정한 부위에만 열이 있다 (머리/얼굴/가슴/배/등/허리/손/발)
 열이 나는 시간은 (항시/오전/오후/저녁/밤)
 체온은 정상이나 스스로 느끼기에 몸에 미열이 (있다/없다)

◎ 惡寒

(손/발/배/기타) 부위가 차다.
 겨울에 추위를 (많이/보통/적게) 느낀다.
 감기가 올 때 추위를 (많이 느낀다/보통이다)
 추우면 체하거나 설사를 (한다/아니다)

◎ 땀

평소에 땀이 (많다/보통이다/적다)
 땀이 나는 때는 (항상/식사중/잠잘때/운동할때/긴장할때/더운곳에서)
 땀나는 부위는 (전신/얼굴/손바닥/발바닥/기타)
 땀을 내고 나면 (상쾌하다/보통이다/힘이 빠진다)

● 소변

소변량은 하루에 ()cc 또는 (많다/보통이다/적다)

소변 횟수는 하루에 ()회 또는 (많다/보통이다/적다)

소변을 주로 보는 때는 (새벽/낮/오후/한밤중/물마신 바로 다음)

소변 볼 때 (정상이다/양이 적다/불쾌하다/아프다/힘이 없다/피가 나온다)

몸이 가끔 붓는 경우가 (있다/없다)

→ 있다면 부위 () 시간 (아침/오후)

● 대변

(하루/2-3일/4-5일)에 ()회 정도 대변을 본다.

(설사/무른변/보통/딱딱한) 대변을 (항상/가끔/드물게) 본다.

대변을 보는 때는 (아침/낮/식사하고 나서 바로/일정하지 않다)

● 음식

채식을 (좋아한다/보통이다/싫어한다)

육식을 (좋아한다/보통이다/싫어한다)

아침을 먹기가 (싫다/보통이다)

밥을 (조금/보통으로/많이) 먹는 편이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보통이다)

가끔씩 잘 체하는 경우가 (있다/없다)

간식이나 군것질을 (하는 편이다/하지 않는다)

밥을 (맛있게 먹는 편이다/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먹는다)

저녁 9시 이후에 야식을 (먹는 편이다/먹지 않는다)

● 수면

평균 잠자는 시간은 ()시간 정도이다.

스스로 느끼기에 수면이 (충분하다/보통이다/부족하다)

잠들기가 (쉽다/보통이다/쉽지 않다)

잠을 늦게 (자는 편이다/자지 않는다)

자는 도중에 몇 번씩 (깨는 편이다/깨지 않는다)

꿈을 (많이 꾸다/꾸지 않는 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보통이다/가볍다)

● 심리

가끔 정신이 나도 모르게 산만한 경우가 (있다/없다)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다/없다)

→ 있다면 언제 ()

불면증이 (있었다/없다)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거나 우울한 기분이 드는 적이 (있었다/없다)

여가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편이다/아니다)

● 체력, 면역력

평소에 운동을 (좋아한다/보통이다/안하는 편이다)

→ 운동을 한다면 주로 하는 종류는 ()

한가지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한다/보통이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보통이다/없는 편이다)

→ 감기가 있다면 그 증상은 ()

● 음악 경향성

평소에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다/보통이다/듣지 않는다)

다음 중 친근감을 느끼는 음악의 장르는? (복수 선택 가능)

(클래식 / 가요 / 국악 / 팝송 / 종교음악)

좋아하는 음악의 분위기는?

(빠르고 경쾌한 음악/조용하고 서정적인 음악/노래 가사 위주의 음악/골고루 좋아하는 편이다)